

시

# 조선의 영원한 신념의 노래여

윤 강 녀

소나무술 올창한 봉화산기슭에  
 끝없이 물결치는 사람들 가슴마다  
 오늘도 지친의 높은 뜻 승업히 새겨주는  
 신념의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생가도 깊어져라  
 한치앞도 기억할수 없었던 암흑의 그 시절  
 삼천리에 울려져질  
 독립만세 그날을 위해  
 력사의 새벽길 남면져 헤쳐시며  
 애국의 더운 심장 쇠붙처럼 불태우신분  
 눈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독립의 한길에서 곁잡음을 신념  
 노래에 담겨 새기고  
 무산혁명의 기치높이  
 만일민족해방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신  
 김형직선생님!

그 길엔 있었어라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는대도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비장한 작오와  
 백성물결의 혁명정신이

이 환몽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독립의 새봄을 안아오시려는  
 계속혁명의 사상  
 죽어도 버리지 않을 억척의 혁명신념이

한가정의 아버님만이 아닌  
 혁명의 위대한 스승이 불려준  
 가장 엄숙한 당부

혁명의 가장 고귀한 유산을  
 가슴에 새겨안으시며  
 기어이 조선독립 안아오리라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혁명의 명세  
 역세제 버리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명세안고 수령님 높이 드신  
 《E.C》의 기치  
 이는 지친의 사상에서 피동했다  
 아버지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에서  
 수천의 총대들이 떨쳐일어나  
 조국해방의 대업도 이룩했다

항일의 그 나날 백두명령고향집에서  
 우리 장군님  
 목우이조선지도에 새겨보시던  
 삼천리금수강산은  
 부강한 조국과 행복한 인민의 모습이었  
 나니

그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우리 장군님  
 헤쳐야 했던 험난한 길  
 넘고넘어져야 했던 최전연결  
 그 길에 뿌리내린 무성한 소나무들 안아  
 보시며  
 야전길 더욱 재촉하소서 그 어이 알라

오늘은 그 소나무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으로 뿌리내려  
 가장 엄숙한 혁명의 길에서  
 단 한치도 에드져 없으라  
 순간도 곁잡이 없었어라

말해주시 않는가  
 국방발전전략회 《자치-2021》  
 오직 그이만이 이룩할수 있는  
 국방력강화의 위대한 기적들이  
 어떤 결사의 작오와 희생의  
 값비싼 대가였던가를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한 길에  
 환몽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우리 원수님의 고결한 인생관  
 정녕 그것은 자신의 환몽을 짊어리 다 바쳐  
 이 땅을 못피우고 미래를 가꾸어가실  
 절세애국자의 위대한 심장의 고백이여라

아, 지친의 높은 뜻 안고  
 울려져졌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세기를 넘어 오늘도 천만의 더운 심장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끌어주나니

아, 위대한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 존함으로 조국은 더 젊어지고  
 그이 존경로 인민은 번영하고  
 그이 경도로 미래는 눈부시리니

우리 기어이 안아오리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라라  
 이 땅에 수천만 아들딸들  
 푸른 소나무처럼 역세제 자라  
 온 민족이 하나되어 북방을 누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강성조선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리라!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 조국 통일 범민족 청년 학생연합 (범청학련) 결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되고 통일운동이 적극화되는 가운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을 위한 북, 남, 해외동포 청년학생들의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인 범청학련을 결성하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1991년 8월 15일 제2차 범민족대회 관련행사로 진행된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 민족대 단결을 위한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통일대회》에서는 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 단장이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그 본부는 베를린에 두며 잡지 《통일의 새 세대》를 창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청년학생대표들은 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들의 단결의 구심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가까운 시일내에 결성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1991년 11월 2일 북과 남, 해외에서 범청학련 공동 해외연락본부가 결성되었으며 본부 를 베를린에 두었다.

1992년 8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범청학련결성을 위한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연석회의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축을 위하여》, 《범청학련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자주적교류와 련대의 실현을 위하여》의 세가지 의제를 토의하고 제3차 범민족대회와 제2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및 범청학련결성식을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적단결의 기치밑에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들과의 련대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것을 결의해나갔다.

1992년 8월 15일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을 위한 제2차 북, 남, 해외동포청년학생통일대축전 및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결성식이 판문점의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는 범청학련건설준비위원회들의 경과보고에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강령과 규약, 결성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1991년 11월 2일 북과 남, 해외에서 범청학련 공동 해외연락본부가 결성되었으며 본부 를 베를린에 두었다.

통일방도화장을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여세계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특별성명서가 발표되었다.

한편 이날 판문점에서와 같은 시간에 서울대학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결성식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범청학련의 결성은 조국의 미래이며 애국의 선봉대인 해외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력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범청학련이 결성됨으로써 통일운동에서 해외외국적청년학생들의 3자련대가 실현되게 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나갈수 있게 되었다.

전민족적범위의 통일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되고 뒤이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이 결성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조직들이 북과 남, 해외의 여러 지역들에 뿌리내리게 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하나의 범민족적인 통일애국력량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이렇듯 공화국정부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는 그 벽두에서부터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확고히 실현하고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조직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을 명실공히 거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되었다.



## 《우리 민족포럼 2021》 일본 도쿄에서 진행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 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 민족포럼 2021》이 12월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장과 박우호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 부의장들, 각지 총련본부위원장, 최병호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과 각지 청상회 대표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도쿄도 아다찌지역 청상회의 주최로 열린 《우리 민족포럼 2021》은 각지 동포들에게 현지실황중계되었다.

행사참가자들은 아다찌지역 청상회 회원들과 함께 도쿄와 각지의 청상회 회원들, 동포들의 우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조국의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이 영상록화방식으로 출연한 1000명 원격대합창 《어린 주인공들에게》를 관람하였다.

허종만의 장은 제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은 청상회를 비롯한 후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은 어려운 시기 동포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청상회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남녘의 민심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시민사회 및 통일운동 단체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식에서 여러 단체들은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발을 맞추어 반미투쟁열기를 고조시키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준비할 조직, 언제나 민족문제에 관심을 두는 상설조직, 파급하고 참신한 활동을 벌리는 실천조직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책동으로 남북공통선언들의 리행이 가로막혀 숨막히던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3년동안을 뼈아프게 돌이켜보면서 《민족자주는 생명이다》, 《민족자주는 통일이다》 등을 주장하며 민족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주도해나간다고 격양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돌이켜보면 온 한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남녘인민들의 투쟁은 멈춤을 모르고 계속되어 왔다.

남녘계열의 자주통일운동은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행사들과 새로운 시민사회단체인 《민주개혁완성, 평화번영통일을 향하여》(《조물전진》)(《조물전진》)의 결성, 온라인으로 개최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전개되었다.

특히 남조선의 진보적청년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발표한 《청년의 미래, 조국통일로 개척자》라는 제목의 격문에서 지금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바로 반세기넘어 지속되고있는 분렬매문이라고 하면서 《자주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통일의 길을 개척해온

것이 청년의 력사이고 전통이다》, 《조국통일에 청년들의 미래,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절절히 호소 한것은 세대를 이어가며 더 더욱 강렬해지는 통일열망으로 사명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반미, 반전평화수호투쟁도 활발히 벌어졌다.

여기에는 종교인들도 적극 참여해나갔다. 남조선의 7개 종단을 망라하고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4월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함께 판문점에서 당국의 대미공중행위와 군비증강책동을 규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광주지역의 카톨릭교, 그리스도교, 원불교 등 14개 종교단체들도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것이 대표적이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매개물로 될 《싸드》를 송두리째 들어내려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투쟁이 벌어지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미국없

는 자주의 시대, 우리 힘으로》라는 기치를 든 민주로총 22기 중앙통일선봉대(통선대)가 울산에서 발대식을 가지 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중단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웨치며 투쟁기세를 높여 갔다.

얼마전에 남조선인터넷 신문 《민틀러스》가 보도한 바 있지만 남조선의 전국민중행동이 《조국통일추진대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서울 통산미군기지앞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를 개최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 막는 《대북적대정책》철폐, 《한미동맹》파기, 남조선주둔미군철폐, 《보안법》폐지 등을 결의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족자주, 반미, 반전을 위한 남녘인민의 열망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녘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앞으로 더욱더 즐거 차게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